

### 에베레스트에 설치된 럭셔리 텐트

네팔 당국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9m) 베이스캠프에 차려진 럭셔리 시설 단속에 나선다.



▲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설치된 럭셔리 텐트의 내부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해발 약 5300m 지점에 설치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는 산악인들이 고산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머무는 공간이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등정이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곳이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일부 관광 회사들은 부자들을 위한 에베레스트 고가 상품을 만들어 팔고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의 대형 텐트에는 안락한 침대와 거실, TV, 온수 샤워가 가능한 개인 욕실까지 구비되어 있다. 고객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까지 날아온다.

논란이 커지자 네팔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네팔 당국은 제한된 베이스캠프 공간을 보다 공정하게 할당해 텐트 크기를 줄이고 헬기 사용도 자제시킬 예정이다. 헬기는 부상이나 고산병으로 고통받는 등산가들을 위한 긴급대피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이에 앞서 에베레스트 산지 대부분을 관할하는 네팔 쿤부 과상 라무 지역자치구는 최근 에베레스트산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 로체산에 오르는 모든 이들이 배변봉투를 소지하게 했다. 이는 에베레스트산에 수많은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한마디로 '똥 산'이 되고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에베레스트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모델 향해 쓰레기 던진 관객들



▲ 쓰레기로 얼룩진 모델의 옷과 난장판 된 런웨이 모습(왼쪽)과 쓰레기를 밟고 넘어진 모델(우측 원 내). 사진=instagram(AVAVAV)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패션쇼에서 한 브랜드가 워킹 중인 모델을 향해 관객이 쓰레기를 던지도록 하는 '쓰레기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화제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AVAVAV'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인 디자이너 베아테 갈손(29)은 지난달 25일 열린 밀라노 패션쇼에서 '쓰레기 퍼포먼스'를 선보였

다. 관객에게 사전에 바나나와 오렌지 껍질, 콜라겐, 물병, 구겨진 신문, 날계란 등이 가득 든 바구니를 전달한 뒤 모델들이 워킹을 시작하면 던지도록 한 것이다.

모델들의 워킹이 시작되자, 실제로 관객들은 바구니에 든 각종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던지면 던질수록 모델들이 착용한 옷들은 더러워졌고, 런웨이는 난장판이 됐다. 워킹 중 쓰레기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델도 있었다. 런웨이 양쪽 스크린에는 그간 AVAVAV 브랜드에 달린 악성 댓글이 띄워졌다. "이건 패션이 아니다" "AVAVAV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등이다. 처음에는 주눅주눅하던 관객들도 쇼가 끝날 때 즈음에는 모두 공격적으로 쓰레기를 던졌다.

AVAVAV 디자이너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을 비난하기 위해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를 악성 댓글에, 관객을 네티즌에, 모델을 악성 댓글을 받는 대상에 각각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 사형 집행 연기 이유 ... "정맥을 못 찾아서"



▲ 아이다호 교정국의 독극물 주사실. 원 내는 유진 크리치. 사진=아이다호 교정국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가 독극물 주입을 위한 정맥을 찾지 못해 사형 집행이 연기됐다.

미국 아이다호 교정국은 지난 27일 사형수 토마스 유진 크리치(73)의 사형 집행을 연기했다.

50년 이상 감옥에 수감 중이던 크리치는 이날 오전 10시 정맥주사를 통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진이 무려 8차례나 그에게 '죽음의 바늘'을 꽂으려 했으나 정맥을 찾는데 실패해 결국 1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 정맥을 찾아 주사하지 못할 경우 사형수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집행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 논란 등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크리치는 연쇄살인마로 수감된 지도 50년이 넘는다. 그는 1970년 대 5건의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건의 살인 혐의도 받아왔다. 또한 수감 중이던 1981년에도 22세의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바 있다.

한편 앨라배마주 당국은 지난 1월 정맥을 찾지 못해 약물 주입을 통한 사형 집행에 실패한 케네스 스미스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질소 주입 방식으로 이를 집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 각종 보험 취급 —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